

투데이 칼럼

부안해양경비안전서 출범을 앞두고

옛 날 칠산 고을에 살던 노인은 마을이 바다에 잠긴다는 현몽(現夢)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였으나 마을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하는 수 없이 손자만 데리고 고을을 떠나 노인과 그를 믿은 사람이 살아남았다는 설화가 있다.



전현명

부안해양경비안전서 신설준비단장

이 설화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전라북도 변산과 위도 인근이라고 전해지며, 예로부터 풍어를 꿈꾸는 자들에게 희망을 선사했으나 칠산비다는 풍요로움과 함께 험난한 파도를 일으켜 많은 사고를 불러왔고 특히 1993년 10월 10일 10시 10분 기상악화와 과적으로 서해 웨리호가 침몰하여 292명이라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부안해양경비안전서는 과거의 아픔을 자유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와 해양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풍요와 아픔의 중심 부안에서 정부직제가 개정되는 오는 4월초 5과 1실 1대 3센터 합정 6척의 기구로 신설된다. 관할은 부안에서 고창에 이르는 약 2,683.2km 해역의 해양치안을 담당하게 되며,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안전과 행복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다. 부안과 고창은 서쪽으로는 바다

와 접한 변산반도와 동남쪽으로는 노령산맥이 겹겹이 쌓여 있어 매년 1,700만여 명이 찾는 만큼 혼 혼한 인접과 전해의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해양사고는 2013년 53건, 2014년 56건 2015년 63건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해양선박 사고뿐만 아니라 부안, 고창의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연안사고(익수, 고립, 추락) 발생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서해바다는 북한의 기습적 미사일 발사 등 국지적 도발 위협과 중국어선과의 분쟁, 밀수·밀입국 등 안보와 치안의 중심에 있으며, 특히 부안해양경비안전서 관할에는 전북 부안 위도~전남 영광 인비군 도 해상에 국책사업인 2,500M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되어 지리적인 중요성이 더욱 증가될 것

으로 예상된다. 필자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 공감, 동행, 상생하는 비장한 각오로 개서를 앞두고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 본다. 첫째, Golden time, 즉 즉시성 있는 해양재난 대응역량 강화로 안전한 바다를 실현하는 것이다. 해양재난 발생시 현장중심의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대응과 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으로 안전 확보에 대한 정신 무장을 강화하여 해양사고에 적극 대응해야겠다. 둘째, 완벽한 해양주권수호 및 안보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다. 해상경비 활동을 강화하여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강력 대응하고 주변국과 남북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해야겠다.

다. 셋째, 해양치안 확보 및 깨끗한 바다를 보존하는 것이다. 해양 민생침해 사범과 밀수·밀입국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해양범죄를 근절할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사고에 대한 신속한 초동 대응태세 확립으로 대형오염사고 방지를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해야겠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화합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직무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으로 전문성을 가진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겠다는 각오이다. 필자가 기억하는 이순신 장군의 어록 중에 驚濤簸動 鼎上草木知(서해어룡동 맹산초목지)라 했다. 이는 "바다에 맹세하니 어룡이 감동하고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아는 구나"라는 뜻이다. 부안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서 서해바다의 해양안전과 치안확보, 바다가족의 행복창출, 현장중심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빈틈없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사설

전북도의 지역 발전 핵심 과제

경제 관련 기관장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머리를 맞댔다는 소식이다. 국내의 경제 불황으로 인해 도내 서민 경제가 힘들어지고 때에 적절한 모임이 아닐 수 없다. 지역 산업의 기조를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어려워하고 있는 때라서 관련 기관장들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오갔을 터이다. 경제 관련 기관장들 모두 협업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의 보았다가에 주는 평가이다. 그래도 여기 다짐받을 것이 있다. 협업체제 구축이라는 높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합의한 것을 존중하는 정신태도가 있어야 한다. 협업체제 구축을 말했어도 나중에 판소리나 나올지 모르기에 미리 명토박이 말해두는 것이다. 그리고 전북도는 돌이켜 상기할 것이 있다. 지역 발전 핵심 과제를 발표한 지 이제 꽤 되었기 때문이다. 시일이 좀 됐다고 해서 망각의 이유는 되지 않는다. 전북도가 밝힌 지역 발전 핵심과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한다. 당연한 말을 하거나 돈이 없으면 추진하고 싶어도 못한다. 무슨 사업이고 돈이 말한다는 것은 불문율이다. 이같은 언급을 전북도에 하는 이유가 있다. 정부가 앞으로 건축제정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북 발전을 위해서 신규 사업이 도전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이다. 전북도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아무리 멋있고 좋은 구상을 해도 정부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말짱 헛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정부의 관계 부처를 상대로 작업을 벌여야 한다. 핵심과제를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해서이다. 경제 관련 기관장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나서고 있는 지금 전북도는 정부를 상대로 뜻이 같고 해야 한다. 협업체제 현안 사업을 역동적으로 밀어부쳐야 한다. 지난날 여러 번 언급한 바 있거니와 새만금 내부 사업이 기대박이라서 유감이다. 탄소산업 밸리 건설 사업 또한 서로 엇박자 소리를 내고 있는데 전북도는 긴장해야 한다. 그리고 내친 김에 덧붙여 지적할 것이 있다. 우리 전북 지역이 전국에서도 가장 낙후된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려면 전북도는 실력 발휘를 해야 한다. 전북도는 이제 그것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전주 구도심 재생 어떻게 됐나

예전에 물어왔던 것인데 다시 물어보아야겠다. 구도심 활성화 사업 밑거름을 보여주겠다고 호기있게 말했으면 뭔가 표 나는 게 있어야 한다. 전주시는 저번에 "가장 인건적인 플랜 5G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새롭다는 느낌이 없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 비슷한 말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공간 재창조가 그러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 구도심 활성화사업이든 도시 공간 재창조이든 그 구체적인 추진이 있어야겠다. 도시마다 인구 이동의 변화가 큰 요즘이다. 인구가 도시 근교의 아파트 지역으로 몰리면서 상권 또한 그쪽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그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도심지의 어느 곳은 폐가 지역들이 꽤 많았다. 특히 전주 서노송동 일부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다. 구도심 활성화 작업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구도심 재생사업은 매스컴을 타기 위한 행보가 돼서는 안 된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더욱 분발해야 한다.

독자제언

대가를 바라지 않는 봉사(奉仕)를 실천하자

봉사란,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고 힘을 바쳐 애써 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담고 있다. 말 그대로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고 힘을 바쳐 애쓰는 것이 봉사라고 할 수 있겠다. 나 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봉사에 책임감과 진실성이 뒤따라야 한다. 한두 번하고 그만 둘 것"이라 하면 아니 시작한다 못하고 그것은 봉사가 아니고 그 어떤 가식이나 사심, 생색, 대가, 얼굴 알리기 위함이라면 깊이도 없을뿐더러 오래갈 수가 없는 봉사가 될 것이 자명하다. 각박한 세월을 지나 요즘엔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조금은 생겨나 나 보다 어려운 이웃을 한번 정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곤 한다.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형식적이고 얼굴 알리기 위한 생색내기, 하루살이 봉사로 못

지 못 할 일들을 꼼꼼 만들어내곤 한다. 그것도 어떤 사회단체, 선거로 직위를 얻고자 또는 자치단체나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을 받고자 그 모든 것을 줄 것 처럼 악수하며 머리 숙이고 이곳 저곳 봉사 단체에 얼굴 보이다가 그 순간이 지나버리면 그 언제 봉사 했는지 180도 바뀌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또한 현실이다. 봉사는 길은 다양하다. 우리 경찰 처럼 자기 어느 직종의 직업에서도 얼마든지 그리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업무 자체에서도 국민에게 무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다. 진정한 봉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순수하게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면서 같이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 손발이 되어 줄 수 있는 마음의 뜻 즉 가식이 없는 얼굴 알리기, 생색내기 없는 진실된 봉사를 의미하지 않나 생각한다. 전성구 무주경찰서 정보보안과경위

독자제언

양보와 배려로 보복운전을 예방하자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에 격분해 고의로 '위험한 흥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극한 감정 상태로 인해 하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위험하기 짝이 없다. 과거에는 보복운전을 해도 사고가 나지 않으면 난폭운전에 대한 교통법칙금 4만원만 부과하는 등 처벌수위가 낮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보복운전뿐만 아니라 급제동 끼어들기, 밀어붙이기, 경음기 과다사용 등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반복적으로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운전 중 사소한 시비로 인하여 차를 세우고 폭언을 하거나 운전 중에 침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

는 경우도 엄연히 범죄가 될 수 있다. 특히 고의로 유발한 사고는 본인 책임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누구나 운전을 하다 보면 초보운전자나 운전습관이 나쁜 사람 등을 간혹 보게 된다.그 때 "무언가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오죽했으면 저러겠나"라고 생각하면서 감정을 가라앉히고 오히려 더욱 조심해서 운전한다면 우리의 마음도 편하고 더 이상 위험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운전 중 다른 운전자에게 잠시 양보하는 여유와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었으면 손을 돌려가 비상 깜박이로 미안함을 나타내는 등 배려와 양보의 선진 교통문화를 다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조충복전안경찰서미령파출소경위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